

2024. 4. 12.(금) 조간용

이 보도자료는 2024년 4월 11일 오전 11: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보도자료

담당 부서 : 동부공원여가센터 서울숲관리사무소

동부공원여가센터소장	김 인 숙	02-460-2900
서울숲관리사무소장	김 방 용	02-460-2980
시설팀장	박 계 현	02-460-2981
담당자	김 진 명	02-460-2983

사진 없음 사진 있음 매수 : 4매

"꽃 따라 걸어보는 산책, 서울숲에서 봄나들이 즐기세요"

- 서울숲 산책로에 튼リップ, 목련, 살구꽃 등 다양한 봄꽃 개화...튼リップ 명소로 발돋움
- 지난해 겨울, 서울숲 내 튼リップ 30종 10만여 본 식재...서울시 내 손꼽히는 규모
- 서울시, 서울숲 공원 '매력가든'으로 조성...군마상 주변 맞이정원 곳곳에 설렘정원

- 복잡한 서울 도심 속 울창한 자연과 체험활동으로 시민들의 쉼표가 되어주는 서울숲에 10만여 본의 튼リップ과 봄꽃이 활짝 폈다. 성큼 다가온 봄을 알리듯 목련, 살구꽃 등을 비롯해 산수유, 벚꽃 등 다양한 봄꽃들이 방문객을 맞이한다.
- 서울시는 작년 겨울, 서울숲 내에 총 30종의 튼リップ 107,885본을 식재했다. 서울시 내에서 볼 수 있는 튼リップ 중 단연 손에 꼽히는 규모라고 할 수 있다. 서울숲의 상징인 군마상을 시작으로 산책로를 따라 걷다 보면 알록달록 화사하게 피어있는 수많은 튼リップ을 만날 수 있는데, 마치 동화 속에 들어온 느낌마저 들게 하는 풍경이 아닐 수 없다.

- 한편, 서울시는 서울숲 공원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이 봄뿐만 아니라 사계절 내내 즐길 수 있도록 변화와 다채로움이 있는 ‘매력가든’으로 조성할 계획이다.
- 서울숲의 주 출입구이자 대표 상징물인 군마상 주변으로 서부해당화, 애기배롱나무 같은 화관목과 톱풀, 호스타 등 다양한 야생화를 함께 심어 방문객들을 맞이하는 ‘맞이정원(웰컴정원)’으로 조성할 계획이다.
- 또한, 군마상을 시작으로 서울숲 곳곳에 테마를 가진 작은 정원들을 조성해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가고 싶고, 머무르고 싶은 설렘이 있는 공원으로 만들 예정이다.
- 김인숙 서울시 동부공원여가센터소장은 “서울숲을 방문하는 모든 방문객이 언제나 설렘을 느끼고 돌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공원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”이라며 “다시 만난 올봄에도 서울숲에서 즐거운 추억 남기기를 바란다”라고 말했다.



